

# 예비 한국어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Dual Target 한국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하여

남 경 란 (대구가톨릭대학교)  
<dbstjf47@cu.ac.kr>



## 국문요약

한국 언어문화 교육에서 언어문화 요소를 적절하게 잘 담고 있는 교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교재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외국인에게 교육을 할 한국어교원들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 특히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한국 유학의 목적을 갖고 있거나 한류 열풍으로 인해 호기심 혹은 한국 드라마나 K-POP 등 보다 나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은 언어를 통해 단순한 대화뿐만 아니라 학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교육을 진행하는 교수자 또는 한국어교사의 한국 언어문화에 대한 교육 능력과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곧 한국어 전파자인 동시에 한국문화의 전파자이기 때문이고 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받은 외국인들 역시 종래에는 한국어를 활용하는 한국어 전파자인 동시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전파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교육할 것인가는 이들을 교육할 한국어교사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교육에 사용할 교구가 가지는 영향력보다도 훨씬 크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글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문화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예비 한국어교사에게 어떻게 한국 언어문화를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주제어** : Dual Target, 한국어교육,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구성, 예비 한국어교사, 역량 강화

## I. 서론

이 글은 한국어교육의 특성화를 위해 예비 한국어교사에게 어떻게 한국 언어문화를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언어문화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투영된 문화적 의미, 언어를 통하여 산출되는 문화적 양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언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Culture Asides, culture capsule과 언어문화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정적인 방법으로부터 참여 관찰, 프로젝트 수업 등과 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조향록 2004, 206).

외국어교육 영역에서의 문화교육은 언어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외국어교육에서 문화는 언어활동의 맥락에서, 궁극적으로는 언어의 중요 기능인 의사소통 행위로 기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는 그 자체이고, 문화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관습, 관념(이 자체가 문화이기도 하지만)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따라서 언어교육은 문화교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문화교육과는 떼어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문화와 문화교육의 이와 같은 특성은 외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자국어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윤여탁 2015, 2).

그런데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능력(Cultural Competence)’은 오지혜(2007, 8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 그것 속에 스며든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언어문화 교육은 언어문화 요소를 적절하게 잘 담고 있는 교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교재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외국인에게 교육을 할 한국어교원들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 특히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한국

언어문화를 통한 한국어교육을 진행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한국 유학의 목적을 갖고 있거나 한류 열풍으로 인해 호기심 혹은 한국 드라마나 K-POP 등 보다 나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은 언어를 통해 학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대화나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교육을 진행하는 교수자, 즉 한국어교사의 한국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와 한국 언어문화 교육 능력, 그리고 이들의 문화교육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곧 한국어 전파자인 동시에 한국문화의 전파자이기 때문이고 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받은 외국인들 역시 종래에는 한국어를 활용하는 한국어 전파자인 동시에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전파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교육할 것인가는 이들을 교육할 한국어교사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교육에 사용할 교구가 가지는 영향력보다도 훨씬 클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문화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예비 한국어교사에게 어떻게 한국 언어문화를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II. 한국어교육의 언어문화 교육에 대한 논점

한국어교육의 언어문화 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는 박영순(1989), 김정숙(1997), 조항록(1998), 성기철(2001), 조항록(2004), 오지혜(2007), 강승혜(2012), 장소원(2012), 윤여탁(2015)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논의와 주장을 세밀히 살펴본다면 향후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위해서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성기철(2001, 114-115)은 문화의 특성을 ‘문화란 역사적 개념으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생성되어 후대에 전해지며 변천하기도 하고 소멸될 수도 있는 것’, ‘사회적 개념으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건설하고 공유하며 다음 사회에 전수하는 것’, ‘선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수·학습을 통하여 전승되는 것’,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하며 적응하는 것’, ‘물질, 정신, 정서 활동의 다양한 대상을 문화로 산출하며 이들 하나하나에 침투하는 것’, ‘인간의 다양한 요구에 응해서 만들어지고 향유되는 총족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문화란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도 지니고 있기에 포괄적 의미에서의 문화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외국어교육이 사회 문화를 동시에 이해하게 하지만 학습 과정은 사회문화 환경과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어 능력을 높이게 함이 목적이다. 그래서 흔히 외국어학습의 목표가 ‘언어나? 문화냐?’의 논쟁을 하게 된다. 문화 학습이 주가 되면 언어 능력은 늘지 않고 문화 이해와 체험만 높이기 쉽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어 문화교육은 언어 능력 함양이 제1의 목표이고 문화 이해는 제2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언어 교육이 문화를 이용하고 철저히 수단화하여 언어 재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sup>1)</sup>는 주장은 타당하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을 박영순(1989)은 문화 교육이 가장 먼저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강한 학습 동기나 의욕을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학습 동기가 뚜렷해질 때 그만큼 학습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목표 언어가 속한 사회와 문화적인 내용을 모두 이해할 때 비로소 상황에 맞는 대화 능력이 습득되는 것이므로 문화 교육은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신장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sup>2)</sup>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논의한 김정숙(1997)은 언어 숙달도 배양을 위해 ‘정보 전달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전환’, ‘언어와 문화의 통합교육 실시’, ‘초기의 교육 단계부터 문화 교육 동시 실시’, ‘다양하고 실제적인 자료들을 사용한 객관적 정보 제시’ 등으로 문화 교육의 방향을 제시<sup>3)</sup>한 바 있다.

특히 김정숙(1997)에서의 논의는 해외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언어와 문화의 통합교육과 초기 교육 단계부터 문화 교육을 동시에 실시해야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이는 비단 학습자 교육에게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학습자를 교육해야 하는 예비 한국어교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방법의 한국 문화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한국 언어문화 교육은 문화 요소를 학습하게 하는 지식 중심 교육으로부터 언어교육과 통합하는 과정 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식 교육의 경우에도 학습자들이 언어활동을 하는 과정과 절차에 의미 있게 작용하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윤여탁(2015, 5-7)의 논의에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윤여탁(2015)은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위상이 궁극적으로는 대중문화나 현실문화의 내용이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이런 언어문화 교육적 지향은 현실문화와 전통문화와의 조화를 통하여 한국적이라는 것, 그 속에 있는 한국

---

1) 민현식(2011, 78-79) 참조.

2) 박영순(1989, 48-49) 참조.

3) 김정숙(1997, 322-323) 참조.

언어문화의 진수(眞髓)를 확인하는 교수-학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전통문화, 고급문화보다는 현실문화, 대중문화에 더 친숙하고, 호의적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언어문화 교육은 학습자가 낯설어 하는 문화 작품은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풀어쓰는 작업이 필요하며, 외국인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마련되어야 할 것은 전통문화나 고급문화 역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단순히 교재개발이나 교재 구성 방안의 마련이 아니라 교수자, 즉 한국어교사들이 한국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전통문화의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이 보다 더 쉽고 효율적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으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임은 자명하다.

한국어교사들이 한국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전통문화의 역량 강화는 조항록(1998, 231)에서 꼽은 고급수준의 학습자 한국어 문화 교육의 다섯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조항록(1998, 231)에서는 고급수준의 학습자 한국어 문화 교육의 목표를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는 어휘적으로서 전문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할 수 있는 고난도의 한자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 가능한 수준의 답과 능력과 이에 필요한 문법 유형’,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고 일반적 맥락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 ‘한국 사회의 세부적인 영역에 관한 이해’, ‘한국어를 매개로 하는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언어활동에 필요한 사회 문화적 능력’의 다섯 가지로 꼽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에 대한 논점들은 조항록(2004), 오지혜(2007), 장소원(2012) 등과 같이 효율적인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 언어문화를 교육할 교재 개발과 교재에의 내용 제시방법, 혹은 문화 관련 항목 선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에 국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항록(2004, 203)은 한국 언어문화와 한국어 교육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언어문화 요소를 한국어 교육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처음에 시도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과정, 교수요목과의 관련성을 논하는 것이다. 언어문화 요소의 선정과 교육 수준의 결정, 그리고 이들 언어문화 요소의 교육 내용 수준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의 하위 요소로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에서의 교재는 유형, 무형의 언어 자료 전체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떠한 언어문화 요소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교육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문화의 요소를 실제 교육에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이 교재와 교재에의 제시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오지혜(2007, 88, 95-96)는

4) 윤여탁(2015, 5-7) 참조.

한국어교육에서의 최근 문화 교육 연구 현황을 살피면서 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를 ‘문화 일반 연구’와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 연구’로 나누고 이 가운데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 연구’를 ‘언어문화 교육 일반에 대한 총체적 논의’와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초점을 둔 언어문화 교육 연구’로 나누어 살폈다. 그리고 언어문화 교육 내용의 구조를 목표 문화의 특정 대상에 대해 학습자들이 문화적인 정보(what)를 얻는 ‘문화 지식 교육’과 그것의 문화적 현상 또는 의미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 경험 교육’, 그리고 목표 문화의 대상을 ‘수행’하는 ‘방법(how)’을 아는 ‘문화 수행 교육’의 세 가지로 구조화하면서 궁극적으로 언어문화 교육은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학습자가 한국의 언어관 및 언어생활관에 대한 언어문화적 ‘지식’을 확보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한국의 언어문화에 맞는 언어생활을 ‘수행’하는 것을 그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장소원(2012, 28)은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그 결과가 실제 교재에 반영된 부분도 적고, 무엇보다 언어 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진 기초 어휘 선정이나 각 급별 문법 항목 선정 등 언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들에 비하면 그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문화와 언어의 연계방안을 찾자면 한국어 회화 교재에서 다루는 문화 항목부터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목적별, 대상별 교재의 성격에 따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필수 문화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별로 언급되어야 할 어휘와 표현이 결정될 때, 진정으로 문화에 기반을 둔 언어 교재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한국 문화 교육의 중심은 교재 개발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강승혜(2012)의 한국 문화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을 참조해 보면 분석한 336편 논문들의 제목과 주제들은 대다수가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효율적인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위해 한국어교사들의 문화 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는 현실이다. 강승혜(2012)는 학위논문 192편과 심사학술지 논문 227편을 포함한 419편의 논문 중 총 336편의 원문을 검색 분석하여 한국 문화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336편의 논문들을 유형별, 주제별, 연구방법별 분류로 구분하여 한국문화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그 가운데 주제별 동향 분석을 ‘문화교육일반’, ‘교육과정개발’, ‘문화교육내용’, ‘문화교수방안’, ‘교재 및 자료개발’, ‘문화교육 평가’, ‘문화적 요인’, ‘기타’의 8가지로 구분하고 이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천성옥(2010, 23)은 “효율적인 문화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문화 소개에 그쳐서는 효과적인 문화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문화를 다룬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성공적인 의사소통과 진정한 문화 학습이라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에 대한 교수방안과 교육내용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기존의 논점으로는 효과적인 문화 교육이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와 문화의 통합교육과 초기 교육 단계부터 문화 교육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이는 비단 학습자 교육에게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학습자를 교육해야 하는 예비 한국어교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방법의 한국 문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학습자보다도 이들을 교수하는 예비 한국어교사들에게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한국 언어문화에 대해 교육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 시 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는 최근 한국어 교사에게 문화 교육을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논의로는 양지선(2012)을 들 수 있는데 양지선(2012)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외국학생 73명<sup>5)</sup>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다. 그런데 양지선(2012, 136)에서 제시한 이들의 한국에서 수업시간에 하고 있는 문화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약 25%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일방적인 선생의 설명으로 공감되지 않음’, ‘너무 간단한 소개로 추상적이라 이해하기 어려움’, ‘수업 내용이 많으면서 설명이 너무 빨라 이해하기 어려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나 교수자가 설명을 회피함’ 등을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양지선(2012, 136)은 “문화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교수자도 전문가가 아니기에 설명에 한계를 느끼고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있어 문화의 범위가 공식적으로 정해지거나 문화 교육 또한 전문가를 통한 한국어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한국어교사에게 문화 교육을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Ⅲ. 한국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구성 원리

#### 3.1. 예비 한국어교사의 언어문화 역량 강화의 필요성

앞서 논점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학습자보다도 이들을 교수하는 예비 한국어교사들에게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한국 언어문화에

---

5) 이때의 외국학생들은 학문 목적과 직업 목적의 학습자들로 구성되었다.

대해 교육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 시 되어야 할 시점이다.

효율적인 문화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문화 소개에 그쳐서는 효과적인 문화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문화를 다룬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성공적인 의사소통과 진정한 문화 학습이라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에 대한 교수방안과 교육내용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천성옥 2010, 23).

외국어교육이 사회 문화를 동시에 이해하게 하지만 학습 과정은 사회문화 환경과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어 능력을 높이게 함이 목적이다. 그래서 흔히 외국어학습의 목표가 ‘언어나? 문화냐?’의 논쟁을 하게 된다. 문화 학습이 주가 되면 언어 능력은 늘지 않고 문화 이해와 체험만 높이기 쉽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어 문화교육은 언어 능력 함양이 제1의 목표이고 문화 이해는 제2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언어 교육이 문화를 이용하고 철저히 수단화하여 언어 재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sup>6)</sup> 언어는 사회와 문화를 배경으로 가지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양상을 비추고 있는 가장 적절한 도구이다. 따라서 언어 학습은 자연스럽게 사회 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표방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언어와 교육이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를 보면 언어 교육이 바로 문화 교육이며, 언어 학습이 곧 문화 학습으로 이루어진다(송윤진 2015, 22). 이처럼 언어 학습과 교육은 문화를 이용하고 수단화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 교육 역시 한국 문화를 언어 재료로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한국어 교원은 한국어를 다루는 교육자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전달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어에 묻어 있는 독특한 한국 문화와 한국사람의 생활양식 등을 문화 상호주의의 자세로 잘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기<sup>7)</sup>에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은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교육할 예비 한국어교사들의 상호주의에 바탕을 한 한국 언어문화의 역량이 강화될 때 보다 더 효율성을 지닌 한국 언어문화 교육으로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한국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한국어교사 파견 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화의 차이를 설문 조사해 본 결과에서도 한국어를 교육할 한국어교사들에게 상호주의에 바탕을 한 한국 언어문화의 역량을 강화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설문 조사는 아래의 <표 1> 해외 파견 시 국가별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 조사 제보자 정보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의

---

6) 민현식(2011, 78-79) 참조.

7) 김한빛나리(2011, 11) 참조.

나라에 파견되어 한국어교육을 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한국어 교육 경력은 1년차에서부터 8년차까지 다양하게 조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의 경험은 없지만 국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학문 목적 외국인 학습자들을 다년 간 교육을 한 한국어교원도 조사하여 해외 현지에서 직접 겪는 문화적 차이와 국내 유학생들에게서 간접적으로 느끼는 문화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표 30〉 해외 파견 시 국가별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 조사 제보자 정보

(2015년 11월 기준)

	참여교사	한국어 교육경력	파견 국가	비고
1	A교사	8년	몽골/태국	현재 태국 한국어교사
2	B교사	5년	태국/베트남	현재 국내 한국어교원
3	C교사	8년	중국/필리핀	현재 필리핀 한국어교원
4	D교사	1년	베트남	현재 베트남 한국어교원
5	E교사	1년	우즈베키스탄	현재 우즈벡 한국어교원
6	F교사	7년	-	현재 국내 한국어교수

위의 〈표 1〉<sup>8)</sup>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 조사에 응한 참여교사는 6명이고 이들의 한국어 교육 경력은 1년차에서부터 8년차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해외에 파견되어 있거나 파견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한국어교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설문은 자유 서술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항은 해외 파견 시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적 차이와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적 차이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이들이 제시한 해외 파견에서 한국어교육 시 느낀 문화적 차이를 나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1) 동남아시아 A국가 - 힘이 있는 공적인 자리를 제외하면 사적인 자리에서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이 무의미, 학생들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키거나 수업에 안 오는**

8) 비교란에 제시한 한국어교사,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수 등의 용어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한국어교사'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한국어교원'으로, 그리고 정식적으로 교수로서의 임용을 거친 사람은 '한국어교수'라고 임의적으로 명명하였음을 밝혀둔다.

9) 이하에서 제시한 국가별 표시는 국가별 문화적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편의에 따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만 제시하기로 한다.

경우가 발생, 거절을 해도 이해를 못함, 부탁인지 명령인지를 모를 정도의 특정행사 참여 강요, 상하관계가 뚜렷한 문화, 교사의 지위가 한국보다는 많이 낮게 여겨짐

- (2) **동남아시아 B국가** - 시간 약속이라는 게 거의 지켜지지 않아, 시험 볼 때 왜 남의 것을 보거나 미리 준비해 온 것을 보고 하면 안 되는지를 이해 못 함, 학교 활동들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수업에 자주 늦고 안 오는 경우가 허다함, 마이 뻘 라이(괜찮다)는 사고가 모든 상황에 적용돼
- (3) **동남아시아 C국가** - 90% 이상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 이해력과 암기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진도를 나갈 수 없어(결혼비자반), 출석과 성적을 별도로 신경 써야하는 것이 힘들어
- (4) **중앙아시아 A국가** - 학교에서 교육문화가 제일 많이 차이나 어렵고 아직까지 돈과 권력이 우선시 되어서 일하는 데 차질이 많이 생겨
- (5) **중앙아시아 B국가** - 학생들이 공부를 크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 (6) **국내 유학생** -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이슬람국가), 역사적 이해,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음(동남아시아국가)

위의 조사에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해외 파견에서의 한국어교육 시 공통적으로 느낀 문화적 차이는 시간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키거나 수업에 안 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당국도 수업보다 학교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고 없이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러한 차이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교 당국이 등록금을 다 냈을 경우 성적이 못 나와도 올려 주라고 하고 재시험을 여러 번 치게 해서라도 성적을 주는 방안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음을 알았다.

이밖에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적 차이로는 '다른 집을 방문 했을 때 주인이 대접하는 음식은 다 먹는 것이 예의라 생각하는 것,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여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답을 하지만 실제로는 일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불안한 치안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 음식 때문에 생활이 불편함, 아주 많이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행동의 제약이 따름’ 등을 꼽았다.

상호문화주의는 문화 다양성의 가치와 이것이 가져오는 문화혼종에 대한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이는 유럽연합이 문화와 교육 교류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바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다양성을 역동성, 혁신, 그리고 창조와 성장의 원천 소스로 본다. 또한 상호문화주의의 핵심은 바로 쌍방향 ‘소통’에 있다.<sup>10)</sup>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쌍방향성에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 간 소통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 3.2. Dual Target 한국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구성

앞선 논의에서도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은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교육할 예비 한국어교사들의 상호주의에 바탕을 한 한국 언어문화의 역량이 강화될 때 보다 더 효율성을 지닌 한국 언어문화 교육으로 체계화될 수 있으며 이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 간 소통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는 곧 예비 한국어교사들에게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언어문화적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예비 한국어교사들에게 한국 언어문화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도 한국의 언어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어를 더욱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지혜(2007, 104)는 “한국어 학습자가 언어 관련 속담을 통해 한국인의 언어관, 언어생활관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확보하고 문화적 경험을 하였다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언어문화에 맞게 언어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는 행위적 능력 (behaviour competence)이란 언어활동에 있어서 참여자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실행 기술(skill for practices)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다.”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비단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논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한국어교사와 예비 한국어교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인식이 배양되어야 할 것이다.

### 1) Dual Target의 개념 정의

한국어교육에서의 예비 한국어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을 함께 실시함과 동시에 양방향 문화 융화 및 이중 언어교육을

---

10) 상호문화주의(창조경제란무엇인가,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참조.

실현하는 ‘Dual Target’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의 ‘Dual Target’이란 예비 한국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이라는 측면에서의 Dual Target인 동시에 언어교육 가운데에서의 ‘한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 그리고 문화교육 가운데에서의 ‘한국문화 교육’과 ‘국제문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의 Dual Target이다.

이 가운데 언어 교육 분야는 한국어교육과 동시에 외국어교육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호 양방향 소통을 위해 이중 언어를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중 언어를 교육할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다중 언어 능력을 배양하여 이를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를 실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중, 혹은 다중 언어 능력 배양은 말만해서 되는교육이 아니다. 그러나 황진영(2012)에서의 논의처럼 쉽지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황진영(2012, 135)은 “다문화 사회의 관점에서는 자문화· 자국어의 언어 정책이 더욱 중요시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언어 문화적 다양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타민족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언어· 문화유산을 어떻게 포용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라고 보았으며 이에 “일반 국민들도 국어가 개인의 효용을 넘어서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세계인들과 의사소통하고 상호 협력하는 매개체라는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국 언어·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중· 다중언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할 교사를 양성하는 일은 일반적인 교사 양성에 비해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미 널리 이중 언어 교육이 실시 중인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이며, 21세기 미래 글로벌 인재들을 길러내려면 다문화적 소양과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교수법을 비롯한 방법론적 소양을 갖춘, 이중 언어· 문화 이해가 가능한 교사가 있어야만 다문화 가정에서 이중 언어· 문화 유능성을 갖고 자란 학생들의 다중적 정체성을 보호하면서 이들을 온전한 이중 언어· 문화 향유자로 길러낼 수 있을 것<sup>11)</sup>으로 본 바 있다.

문화 교육 분야는 한국문화교육과 동시에 한국문화의 실습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더불어 국제문화에 대한 교육과 예비 한국어교사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특기를 가질 수 있도록 재능을 육성 시키는 것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를 수 있을 것이다.

## 2) Dual Target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필요성

이와 같이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을 함께 실시함과 동시에 양방향 문화 융화 및 이중

---

11) 황진영(2012, 141-142) 참조.

언어교육을 실현하여 예비 한국어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 언어문화를 교육할 전문인력, 즉 예비 한국어교사들의 언어 및 문화 재능을 다양하게 길러 줄 필요성이 있으며, 그리고 한국 언어문화의 교수법을 교육과정에서부터 혁신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예비 한국어교사들을 일찍부터 한국어 교육 실습이나 교육봉사, 혹은 인턴십 등을 통해 한국 언어문화를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통해 현지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먼저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 언어문화를 교육할 전문인력, 즉 예비 한국어교사들의 언어 및 문화 재능을 다양하게 길러 주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과 상호소통을 위한 외국어 집중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때의 한국 문화는 한국 현대 및 전통 문화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무용이나 한국 전통 기악, 그리고 한국 전통 놀이 등 예비 한국어교사들이 몸으로 직접 배우고 익혀 한국 언어문화 교육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 역시 예비 한국어교사들이 한국어교육 실습이나 교육봉사, 혹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국가(가령,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동남아시아어, 유럽어 등)의 언어에 대한 집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외에도 문화 간 융화를 위해 다문화 민족지 이해교육이 아울러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으로는 언어 및 문화 재능을 다양하게 기른 예비 한국어교사에게 문화 간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상호문화가 융화될 수 있는 한국어교수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예비 한국어교사에게 교육하고 있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한국 언어문화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할 때 가능하며,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시스템이 가동될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예비 한국어교사들의 해외 한국어교육 실습이나 교육봉사, 혹은 인턴십 등을 통해 한국 언어문화를 해외 현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 체험 및 장단기 한국어교육 실습을 교육 과정에 신설해야 한다. 그런 후에는 해외 현지 한국어교육 기관(해외 현지 중등학교나 대학교, 혹은 한국어교육 기관 등)과 공동으로 해외 현장 체험 및 해외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예비 한국어교사들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열어 주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어교사로서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 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 예비 한국어교사들의 한국 언어문화뿐만 아니라 양방향 언어문화에 대한 역량을 증가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에서 지향하는 언어와 문화의 통합교육이 국내외에서 학습자들에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이는 곧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 한국어교사들이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문화 전파자로서의 자리매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3) Dual Target 한국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구성 원리

한국어교육에서의 예비 한국어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을 함께 실시함과 동시에 양방향 문화 융화 및 이중 언어교육을 실현하는 ‘Dual Target’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위의 Dual Target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필요성에서 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즉 위에서 언급한 3가지 Dual Target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이것이 바로 위의 Dual Target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Dual Target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언어문화를 교육할 전문인력, 즉 예비 한국어교사들의 언어 및 문화 재능을 다양하게 길러 주게 하기 위함이며, 한국 언어문화의 교수법을 교육과정에서부터 혁신하기 위함인 동시에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예비 한국어교사들을 일찍부터 한국어교육 실습이나 교육봉사, 혹은 인턴십 등을 통해 한국 언어문화를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통해 현지화 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필요성에 따라 Dual Target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프로그램 구성 역시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언어문화를 교육할 예비 한국어교사들의 언어 및 문화 재능을 다양하게 길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한국 언어문화의 교수법을 교육과정에서부터 한국 언어문화 교육으로 바꿔 나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전문화 시킨 예비 한국어교사들에게 일찍부터 한국 언어문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을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한국어교육을 해외 현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다양한 언어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때 효과적이며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일대일로 튜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비 한국어교사들에게 이중 언어를 사용하여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역동적인 교육 현장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한국어교육에서의 고급 담론 교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명문 한국어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아울러 양방향 두 개의 언어를 병행하여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예비 한국어교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다국적 언어문화를 교육할 수는 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들을 다국적용 한국어교재의 개발이 가능한 교수 혹은 연구 요원이 되도록 역량을 강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예비 한국어교사들이 향후 해외에서 한국어교육을 할 때 한국 언어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현지 문화의 이해력을 담보로 하여 한국어교수법과 한국어교재를 현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다문화 의식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교사들은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현지 정착을 하게 될 것이며 학습자들과의 유대감이 강화되어 이는 바로 한국어의 세계화 정착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한국 언어문화를 교육할 예비 한국어교사들의 언어 및 문화 재능을 다양하게 길러 주고, 한국 언어문화의 교수법을 교육과정에서부터 혁신하며,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해외 한국어교육을 통해 현지화 시킬 Dual Target 한국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한국 언어·문화 교육 전문 인력의 다재능화’, ‘한국 언어·문화 교수법의 혁신화’, ‘한국 언어·문화교육의 현지화’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방안 가운데 한국어교육의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한국 언어문화의 교수법을 교육과정에서부터 한국 언어문화 교육으로 바꿔 나가는, 즉 ‘한국 언어·문화 교수법의 혁신화’뿐이며 ‘한국 언어·문화 교육 전문 인력의 다재능화’와 ‘한국 언어·문화교육의 현지화’는 실질적인 정규 교육과정에서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어·문화 교육 전문 인력의 다재능화’와 ‘한국 언어·문화교육의 현지화’는 정규 과정과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한국 언어·문화 교육 전문 인력의 다재능화’는 비교과활동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어교육의 전문적인 능력(가령 문법, 발음, 어휘, 교수법, 교재개발 방안, 교육론 등)을 길러 줄 수 있으나 실질적인 문화 활용 능력을 길러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다시 말해 문화 활용 능력을 실질적인 문화 수업을 통해 길러지기 때문에 교실 밖 문화 수업으로 연동할 수밖에 없다.

교실 안에서의 문화 수업은 문화의 각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학습자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과제 수행 등의 부가 활동을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어 보다 심층적인 문화 교수가 가능한 반면, 별도의 문화 수업은 수업 외의 시간을 할애하여 문화 수업을 하는 형태로 정규 수업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도가 저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전문적인 문화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과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천성욱 2010, 20).

## IV. 결론

한국 언어문화 교육에서 언어문화 요소를 적절하게 잘 담고 있는 교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교재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외국인에게 교육을 할 한국어교원들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 특히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한국 유학의 목적을 갖고 있거나 한류 열풍으로 인해 호기심 혹은 한국 드라마나 K-POP 등 보다 나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은 언어를 통해 단순한 대화뿐만 아니라 학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교육을 진행하는 교수자 또는 한국어교사의 한국 언어문화에 대한 교육 능력과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곧 한국어 전파자인 동시에 한국문화의 전파자이기 때문이고 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받은 외국인들 역시 종래에는 한국어를 활용하는 한국어 전파자인 동시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전파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교육할 것인가는 이들을 교육할 한국어교사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교육에 사용할 교구가 가지는 영향력보다도 훨씬 크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글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문화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예비 한국어교사에게 어떻게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 원리에 관하여 논의한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된 것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장에서 한국어교육의 언어문화 교육에 대한 논점들을 살펴 향후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위해서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둘째, 2장에서 한국어교육의 언어문화 교육에 대한 논점들을 살펴본 결과 효율적인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학습자보다도 이들을 교수하는 예비 한국어교사들에게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한국 언어문화에 대해 교육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 시 되어야 할 시점임을 제시하였다.

셋째, 3장에서는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한국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에서 직접 겪는 문화적 차이와 국내 유학생들에게서 간접적으로 느끼는 문화 차이를 설문으로 조사하여 예비 한국어교사의 언어문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논하는 근거 자료로 제시하였다.

넷째, 설문 조사의 서술을 통해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 간 소통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것임을 밝혔다.

다섯째, 한국어교육에서의 예비 한국어교사들에게 한국 언어문화의 교육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을 함께 실시함과 동시에 양방향 문화 융화 및 이중 언어교육을 실현하는 Dual Target 한국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여섯째, Dual Target 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아울러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 언어문화를

교육할 전문인력, 즉 예비 한국어교사들의 언어 및 문화 재능을 다양하게 길러 줄 필요성과 한국 언어문화의 교수법을 교육과정에서부터 혁신할 필요성, 그리고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예비 한국어교사들을 일찍부터 한국어교육 실습이나 교육봉사, 혹은 인턴십 등을 통해 한국 언어문화를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통해 현지화 시킬 Dual Target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3가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곱째, Dual Target 한국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 언어·문화 전문인력의 다재능화’와 ‘한국 언어·문화 교수법의 혁신화’,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현지화’로 구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강승혜. 2012. “한국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주제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제9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김정숙. 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10, 317-325. 한글학회.
- 김한빛나리. 2011. “한국어교원 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국의 한국어교원 초청 연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 2011. “외국인을 위한 언어 문화교육에서의 제반 문제”. <제28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 77-112, 한중인문학회.
- 송윤진. 2015. “요구 분석을 통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과정 개발 방안-외교관 학습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지선. 2012. “외국인 학습자에 따른 한국문화 인식 조사-학문 목적과 직업 목적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제9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오지혜. 2007.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범주 및 구조 설계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제4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윤여탁. 2015.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제12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장소원. 2012.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와 문화의 연계”. 『한국언어문화학』 제9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조항록. 2005. “한국 언어문화와 한국어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천성욱. 2010. “요구분석을 통한 한국어 · 문화 교육 통합 프로그램 설계 방안 연구-비정규 비영리 한국어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황진영. 2012.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중언어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Dual Target 한국언어문화교육사업단. 2014.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신규 선정 사업계획서”. 대구가톨릭대학교.

● 투고일: 2015.11. 9.    ● 심사일: 2015.11. 9.    ● 게재확정일: 2015.11.16.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ual target for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program based on competency enhancement of pre-service Korean language teachers**

Nam, Kyeong na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In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it is crucial that not only a textbook which contains adequate language and culture components, but also competency of Korean language teachers who directly and indirectly teach Korean to the foreign language learners with the textbook. Even more so when applied to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in the foreign countries than in Korea.

Korean language learners in another country have purpose of studying abroad in Korea, as well as the better communication for watching Korean drama or K-POP. Therefore,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Korean learners should be for not only simple conversation, but for achieving academic success.

First of all, this includes educational competencies and roles of Korean instructors or Korean language teachers who teac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ey would be spreaders for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at the same time. Eventually the Korean learners educated from the Korean language teachers could be also spreaders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us, how to teac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or the foreign language learners depends on Korean teachers' qualification and competency rather than the influence of Korean textbooks or material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posal how to teac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or pre-service Korean language teachers becoming culture spreaders, not just communicators.

**<Key words>** Dual Target, Korean language education, language and culture, Configuration education program, pre-service teacher, Competency Enhancement